

# 박삼구회장 금호산업 매각 단독 협상 확정

### 채권단 결의... 내달 기업가치 산정 후 7월 협상

### 8월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 11월 매각 마무리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매각을 단독 협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이면 금호산업의 매각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채권단 의결권 기준 98%가 박 회장과 박 회장의 개별협상을 통한 매각 추진안에 동의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57.54% 가운데 56.28%가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가결 의견인 지분 비율의 75%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금호산업은 박 회장과 박 회장의 단독 협상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금호산업 채권단 52개사는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고 본업협에서 유찰된 금호산업의 매각을 개별협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채권단과 박 회장은 다음달 중 삼일회계법인 및 안전회계법인 두 곳의 매각가치 산정 절차를 거친다. 기업 가치가 정해지면 채권단은 경영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을 박 회장에 제시하게 된다. 채권단과 박 회장은 7월 중 협상을 거치게 되고, 박 회장은 8월 중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이 호반건설의 응찰액 6007억원을 뿌리친 만큼, 최소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기업 가치가 평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T렌탈이 롯데그룹에 1조원 넘게 팔린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 2위 국적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인 금호산업도 이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업계의 예기다. 채권단의 제시액은 8월 중

### 금호산업 향후 매각 절차

6월 중 금호산업 기업가치 산정

7월 중 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매각 협상

8월 중 박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결정

11월 중 (우선매수권 행사시) 금호산업 매각절차 완료



박 회장에 넘어가고,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11월 중 매각 작업이 끝난다. 6년 만에 금호산업이 박 회장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다.

만약 박 회장이 채권단이 내놓은 금액을 거부하면 채권단은 다시 일반적으로 가

격을 통보할 수 있다. 박 회장이 이를 재차 거부하면 채권단은 거부 통보를 받고서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익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단의 결의에 이날 박 회장 측은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실사를 통한 매각가치 산정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적절한 가격이 나오길 바란다"며 "채권단이 계획한 절차를 따라갈 뿐 선제적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에 기대 못 미치거나 박 회장과 박 회장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워크아웃 선(先) 졸업-후(後) 매각'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수주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13.72 (+7.22) ▲ 금리 (국고채 3년) 1.89% (+0.01)

▼ 코스닥 703.25 (-2.15) ▼ 환율 (USD) 1085.60원 (-0.10)

### 광주일고, 오너 기업인 3명 배출

#### 지방 고교 두번째

#### 경기도 31명 최다

국내 오너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경기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제일고는 3명을 배출, 지방 고교로서는 경남고(4명)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18일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국내 193개 고교를 오너와 그 일가 기업인 214명의 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고는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인 중 31명이 졸업, 최다 배출 고교로 나타났다.

지방고 중에서는 경남고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병현 금비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본능 회성 회장, 홍하중 DSR 사장이 경남고 출신 오너 기업가들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광주제일고 동문으로, 광주·전

남에서는 광주일고가 최대 배출 고교였다.

광주일고에서는 3명 이외에도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오세철 전 금호타이어 사장(현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사장, 손성원 한미은행장 등을 배출했다.

전남에서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모교인 강진농고와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졸업한 순천고도 그들 오너 출신고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강진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다. 이 회장은 순천고에 기숙사와 역사관을 기증할 정도로 남다른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윤홍근 BBQ 회장과 정성기 미래에셋 부회장, 문성환 휴비스 사장 등도 동문이다.

지난 5월 재벌로 분류된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경우 지수성기안 사례로, 출신고는 따로 없어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으며 아들 정원주 사장은 광일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상장사 시가총액 증가

### 전남 36조2000억 2.5% ↑

### 신규 상장·한전 이전 영향

### 상장사수 비중 여전히 열악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비중은 늘었지만 상장사 분포와 시가총액 추이 등은 지역별 중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세화아이씨엠의 신규 상장했고 전남은 한국전력 등 이전으로 규모가 커졌지만 수도권 중심이 전국적으로 상승했고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사 지역별 시가총액 현황(2015년5월12일 기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이 각각 3조8001억원과 36조2045억원을 기록해 시가총액 전체의 0.26%와 2.51%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은 한전과 한전KPS의 가세로 시가총액 비중 순위가 크게 상승해 서울(790조2633억원, 54.72%), 경기(39조2827억원, 27.44%)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시장별로 보면 전남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35조8233억원(비중 2.85%, 광주는 3조4211억원 0.27%)으로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682억원과 3707억원으로 0.20%씩 점유했다.

코넥스시장은 광주가 108억원으로 전체

의 0.45%, 전남은 105억원 0.44%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 시가총액 변동 현황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조8001억원과 36조2045억원으로 전년말 보다 3637억과 3조4460억 늘어 각각 10.58%, 10.52%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역별 변동 현황을 보면 인천 소재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20조4367억원에서 29조4273억원으로 43.99% 늘면서 증가율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세종(41.51%), 강원(33.53%), 대전(25.59%) 소재 기업들의 증가율도 높았다.

상장사 분포 비중 역시 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17개와 15개, 총 32곳으로 전체 1825개의 1.75%에 그쳤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상장사(1206곳, 전체의 70.25%)를 제외한 권역별 상장사 수와 비교해봐도 심하게 격차가 났다. 3개 광역시를 포함한 영남권은 292개인 반면 광주와 전남 호남권(전북 포함)은 53곳으로 4분의 1에 불과했다.

유가증권시장은 17곳으로 전체의 2.34%, 코스닥시장은 13곳으로 1.26%를 차지, 하위권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광양 햇매실 출하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광양에서 올해 첫 수확된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양재하나로클럽에서는 올해 첫 출하한 광양의 최상품 매실을 시세대비 30% 저렴한 2만3800원에서 2만7800원(5kg/특품기준)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 전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일 남악에 문연다

전남지역 여성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의 경영으로 해소를 위한 전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오는 20일 무안 남악에서 전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식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창업보육지원센터 ▲여성 창업보육공간

제공 ▲실전창업스쿨·여성창업경진대회·차세대 여성CEO교육 등의 여성창업지원 ▲여성 유망산업에 대한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여성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달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호남통계청, 내달 2일까지 '외국인 고용조사'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백만기)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 외국인 인력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만15세 이상의 외국인(전국 1만811명) 가운데 광주(350명), 전남(441명), 전북(423명), 및 제주(313명)에

체류하고 있는 1527명으로, 체류자·유학생 등 개인특성과 고용관련 항목 등 총 3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면접조사 방식 외에 필요에 따라 전화, 자기기입식 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만큼, 언어소통이 어려울 경우 법무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오직중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마스코트 제품 및 유통업체의 취급량을 꼭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마비, 발이창, 전지암해 등 탈락사예의 지원을 받으신 모든 환자님)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스도대신프리모 광

대산프리모가발